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청년층의 독립적인 생활 형태가 확대되면서, 주거지역 주변의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중요한 생활환경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청년 1인가구는 편의점, 의료기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 내에서도 청년 1인가구의 공간적 분포와 생활편의시설의 공급 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시설의 절대적인 개수만 비교할 경우 실제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상대적인 부족 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남시 청년 1인가구의 읍면동별 분포를 파악하고, 체인화 편의점과 일반 의원의 사업체 수를 결합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1인가구 규모에 비해 생활편의시설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탐색하고, 청년 생활서비스 및 생활 SOC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우선 지원지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추진과정

◦ 분석대상 및 자료

분석대상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이며, 수정구·중원구·분당구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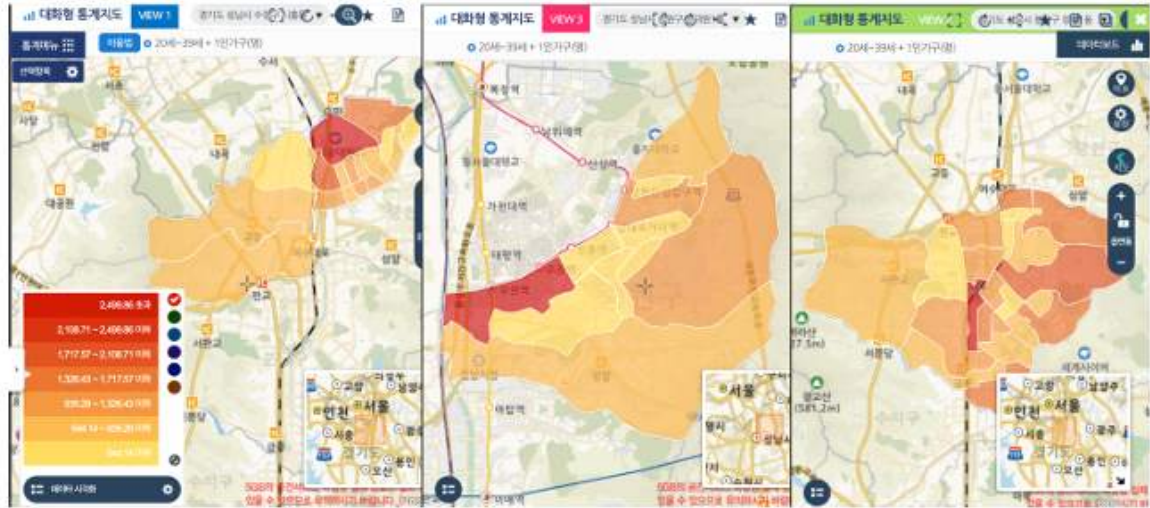
청년 1인가구 자료는 SGIS 대화형 통계지도-인구주택총조사의 2024 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청년층을 20 세 이상 40 세 미만(20~39 세)으로 정의하고, 연령조건과 세대구성 조건 중 1인가구를 결합하여 읍면동별 청년 1인가구 규모를 산출하였다.

생활편의시설 자료는 SGIS 대화형 통계지도-전국사업체조사의 2024 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생활서비스 지표로 체인화 편의점과 일반 의원을 선정하였다.

(a) 수정구

(b) 중원구

(c) 분당구



[그림 2] 2024 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의 20~39 세 1 인가구 공간분포

주: 각 지도에서 색이 진할수록 해당 읍면동의 20~39 세 1 인가구 수가 많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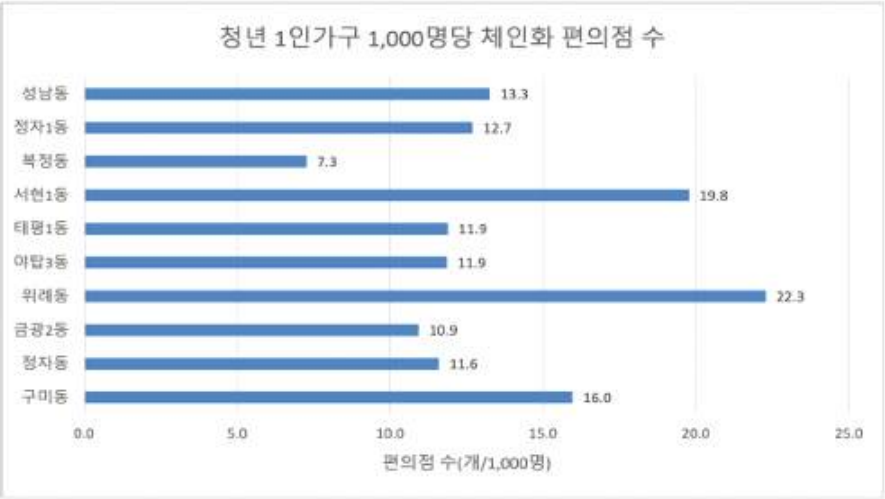
지역	20~39 세 1 인가구	편의점 수	1,000 명당 편의점 수	일반 의원 수	1,000 명당 일반 의원 수
성남동	4,224	56	13.3	51	12.1
정자 1 동	3,072	39	12.7	61	19.9
북정동	2,891	21	7.3	2	0.7
서현 1 동	1,922	38	19.8	100	52.0
태평 1 동	1,766	21	11.9	8	4.5
야탑 3 동	1,687	20	11.9	6	3.6
위례동	1,616	36	22.3	71	43.9
금광 2 동	1,556	17	10.9	19	12.2
정자동	1,467	17	11.6	14	9.5
구미동	1,441	23	16.0	27	18.7

[표 1] 청년 1 인가구 상위 지역의 생활편의시설 현황

◦ 청년 1 인가구 규모 대비 편의점 공급 수준

청년 1 인가구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체인화 편의점 공급 수준을 비교한 결과, 단순 업체 수와 인구 대비 공급 수준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성남동은 편의점이 56 개로 많았으나 청년 1 인가구도 4,224 명으로 가장 많아, 1,000 명당 편의점 수는 13.3 개였다. 반면 북정동은 청년 1 인가구가 2,891 명으로 성남시에서 세 번째로 많았지만 편의점은 21 개에 그쳐 1,000 명당 7.3 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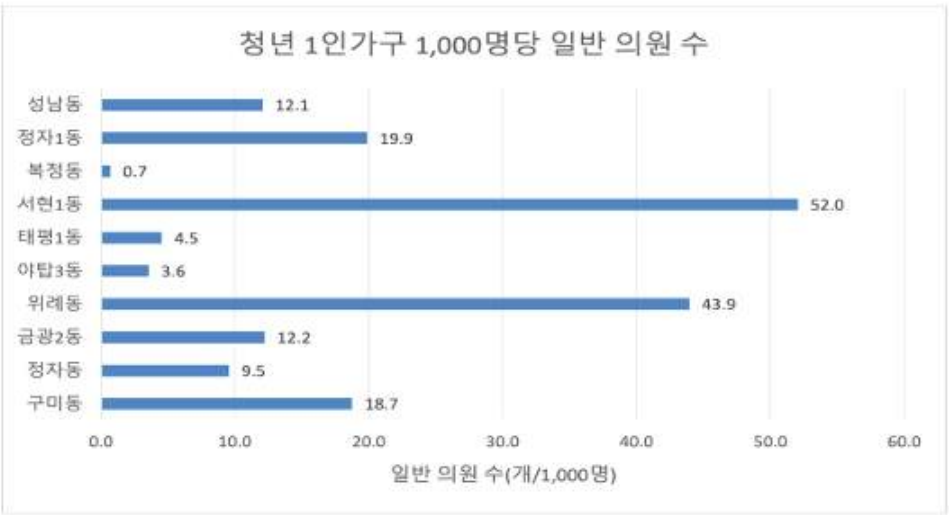
반면 위례동은 1,000 명당 22.3 개, 서현 1 동은 19.8 개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단순 시설 수보다 청년 1 인가구 규모를 고려한 상대적 공급 수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20~39 세 1 인가구 상위 지역의 1,000 명당 체인화 편의점 수

◦ 일반 의원 공급 수준

일반 의원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복정동은 청년 1 인가구가 2,891 명임에도 일반 의원은 2 개로, 1,000 명당 일반 의원 수가 0.7 개에 불과하였다. 태평 1 동은 4.5 개, 아탑 3 동은 3.6 개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서현 1 동은 1,000 명당 52.0 개, 위례동은 43.9 개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복정동은 편의점과 일반 의원 두 지표 모두에서 청년 1 인가구 대비 공급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4] 20~39 세 1 인가구 상위 지역의 1,000 명당 일반 의원 수

◦ 생활서비스 우선 지원지역 탐색

청년 1인가구 규모와 편의점 및 일반 의원인 인구 대비 공급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북정동은 청년 1인가구가 2,891 명으로 매우 많음에도 편의점과 일반 의원 공급 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나 가장 뚜렷한 수요·공급 불균형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야탑 3 동, 태평 1 동, 정자동, 금광 2 동 등도 청년 1인가구 규모에 비해 일부 생활서비스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정동을 우선적인 검토대상으로 제시하고, 야탑 3 동과 태평 1 동 등도 추가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성 점검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본 분석은 행정동별 인구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탐색 결과이므로, 실제 정책 적용 시에는 시설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접근성, 영업시간, 시설 규모, 인접 행정동의 시설 이용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추진성과

본 분석은 SGIS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읍면동 단위로 결합하여, 청년 1인가구의 수요 규모와 생활편의시설 공급 수준을 함께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 1인가구 1,000 명당 편의점 및 일반 의원 수를 산출함으로써 단순 시설 수보다 지역별 실제 수요를 고려한 비교가 가능했으며, 북정동 등 청년 1인가구 규모에 비해 생활편의시설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정책, 생활 SOC 확충, 공공서비스 배치, 민간 생활서비스 입지 검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분석방법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면 청년뿐 아니라 고령자, 1인가구 등 특정 수요계층의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을 탐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향후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의 자료와 실제 이동거리·생활권 정보를 추가하여 보다 정교한 접근성 분석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